

는 지도력 앞에 교회는 참 질서를 유지하면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으로 영적 통일성을 경험했을 때 成長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백성들이 각기 자기 주장을 버리고 성령의 주시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으며 그 인도를 받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하나 되는 것은 교회의 참된 成長의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들은 내부적으로 사분 오열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주 안에서 영적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갈 3:8; 고후 5:17; 베전 3:7; 딤 전 5:12)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원리

오 병 세
(고신대 학장)

차례

- | | |
|--|------------------------------------|
| 1. 예루살렘 전도
2. 유다 · 갈릴리 · 사마리아 전도
3. 앤디옥 전도 | 4. 소아시아 전도
5. 유럽 전도
6. 로마 전도 |
|--|------------------------------------|

프린스頓 신학교의 조직 신학 교수였던 워필드 교수는 사도행전을 ‘세 센타를 중심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 센타는 사도행전 1:1~8:1까지에 나타나는 예루살렘, 8:2~12:25까지의 수리아 앤디옥, 13장~28장까지에 나타나는 로마인 것입니다. 13장~

*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1982.2)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입니다.

28장까지가 다 로마로 향하는 것인가에는 문제가 있으나 초대 교회는 이 세 센타를 중심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의 교회가 시작되었으며, 복음이 안디옥으로 번져서 그곳이 제2의 센타가 되는 동시에 이방 선교의 거점이 되었고, 다시 로마에까지 복음이 진전되었습니다.

사실 누가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의사 이상으로 그는 신학자였고 기독교의 첫 역사가였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까지를 교회 역사의 앞 부분에 놓았는데 그것이 곧 누가복음이고,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복음이 전파된 것의 기록이 곧 사도행전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의 요절인 동시에 아우트 라인인 1:8을 중심으로 유대주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까지 어떠한 경로로 교회가 설립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사람이 도구로 기용되고 활용되기는 했으나 사실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확산이 5년을 구분으로 여섯 구역으로 나타나는데 약 30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1. 예루살렘 전도(1:1~6:7)

1:1~8은 물론 사도행전의 서론이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사도행전의 첫 부분을 1:1~6:7로 볼 수 있는데 이 중에서 6:7은 그 첫 부분의 결론이며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토대로 예루살렘 전도의 역점과 결과를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홍왕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후렴처럼 비슷

한 말로 계속 나타나는 ‘전파된 말씀이 풍성했다’는 것은 책으로 된 것이 아니고 구두로 전파됨을 말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혹은 ‘사도의 가르침이 많이 퍼졌다’(행 2:42)는 것입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된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조직이나 제도는 말씀 전파를 위한 방편이었던 것입니다. 전파된 말씀이 홍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풍성하고 그 내용이 바로 전해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이 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전도의 특징은 수적인 증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다’가 아니라 ‘수가 심히 많아졌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교회 성장을 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바로 전파되고 성령이 함께 하는 곳에 수적인 증가가 있는 것입니다. 수적인 증가가 없는 교회는 병이 든 교회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수적 증가에만 신경을 써 기형적인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전파될 때 수적 증가는 필연적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제사장들의 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홍왕하고 잘 전파될 때에 형식주의 종교가 굽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해 문서 가운데 하박국 1장과 2장을 주석한 「하박국 주석」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그 시대에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는가를 잘 알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그 하박국 주석에는 ‘악독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예루살렘 제사장을 향하여 ‘악독한 제사장’ ‘악한 제사장들’이라는 말로 불렸습니다. 형식주의, 껌데기만 남아 있는 유대주의 종교, 타락한 외식 종교, 이런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굽복을 당해서 많이 개종을 한

것입니다.

루터, 칼빈, 요한 낙스가 독일과 제네바와 프랑스, 스코틀랜드에서 종교 개혁을 이룩한 것은 형식주의 종교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였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설교의 초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설교 중 십자가와 부활이 나오지 않는 설교가 두 편이 있는데, 하나는 스테반의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밀레도에서 행한 에베소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설교(행 20:17-35)입니다. 스테반의 설교는 미완성 설교이기 때문이며 에베소 장로들을 위한 바울의 설교는 그들이 이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므로 필요가 없어서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편을 제외하고는 십자가와 부활이 설교 때마다 전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발전의 필수 요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강단의 설교에서는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나오는가? 부활은 부활절에만, 십자는 가끔 설교되지는 않는가? 우리의 수적 증가는 부족한 이유는 사실 십자가와 부활을 강조하지 못하는 연고가 아닐까? 이런 반성의 여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설교에 윤리, 도덕이 나오지 않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십자가와 부활이 설교의 대주제였습니다. 오늘날의 설교가 철학적이고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긴 하지만, 복음의 핵심이 전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 유다·갈릴리·사마리아 전도(6:8~9:31)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의 전도의 요약은 9:31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

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여기서는 세 지방을 말하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들’이라고 복수로 표시되어야 할 텐데 단수로 기록되어 있음을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이는 여러 지역으로 나뉘어 있지만 하나의 교회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교회’는 지역을 따라 모이는 처소가 달라도 다같이 피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교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편적인 교회’라는 개념이 이때부터 잘 발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것이 하나의 교회 운동을 강조하는 것이기는 합니다만 진정한 에큐메니칼 운동은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지역은 나뉘어져 있지만 피흘려 구속하신 예수님의 하나 된 교회라는 개념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교회 성장의 비결은 평안한 데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리하여’는 ‘그러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8,9장의 팁박을 이야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여’ 다시 말하면 ‘비록 팁박이 있어도 교회는 평안하게 자라 간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은 성장의 토대가 되고 그 위에 발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든든히 서 가고’라고 했는데 이것은 성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 가는 데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약합니다. 목사들도 때로 위로 받을 곳이 있어야 힘을 내고, 교인들도 매주 일 영혼의 위로와 안식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교회는 성령의 위로로 채 자라게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수가 많아지더라’고 했습니다. 살아 있는 교회의 특색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정체 상태에 있는 것은 병든 것이고 죽은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같이 수적 증가는 교회의 살아 있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 부분과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되어서 평안하고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는 데 수적 증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증가는 인공적인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파될 때 있었다는 것입니다.

3. 안디옥 전도(9:32~12:24)

사도행전의 제3부라 할 수 있는 9:32~12:24은 복음이 안디옥까지 어떻게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줍니다. 이 부분의 요약은 12:24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때도 역시 펫박이 심한 때라서 야고보가 목 베임을 받았고 베드로가 옥에 갇히고 숨어다니던 형편 속에서도 성도들이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 곧 전파된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는 말은 동적이고 움직이는 요소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된 말씀, 전해지는 말씀, 읽고 전하고 가르치고 암송하고 계속 말해지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이 자꾸 움직이도록 전파되고 입에서 말해지고 암송되어지고 생각될 때 교회에 발전이 있고, 그것이 동백이 되어 안디옥 지역까지 복음이 퍼져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평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말씀에 승복하는 자세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명맥을 이루고 발전하고 흥왕하고 성장하는 교회들은 성령을 바로 믿고 영혼을 구원 하려는 열심이 있는 복음적인 교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절대성을 믿지 않을 때 그 전도는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안디옥까지 퍼져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한 것이 바로 사도적 교회의 특색인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도 성장을 생각하고 바라본다면 전파된 말씀이 풍성하고 흥왕하고 움직이고 살아서 악동하고

영혼을 찌르고 깨우치는 그런 요소가 없어서는 바른 성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4. 소아시아 전도(12:25~16:5)

제4부는 16:5에 가서 그 결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여기에 보면, 전파된 말씀이 잘 전파될 때, 그 교회의 믿음이 굳어지고 확실해지고 견고해지고 혼들림이 없고 튼튼해지는 결과가 있으며, 또한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의 증가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방법이 잘못이지 분명히 수적 증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뿌리를 내린 이 상태, 이것이 초대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아시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가지고 교회 성장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해서 이 전파된 말씀이 영혼 속에 숨어 들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요즘 면 단위 교회로서 부흥하는 교회를 안동 지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그마한 교회도 200명 이상이 모이게 되면 크게 예배당을 짓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농촌이 편절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고 믿음이 굳어지고 할 때 수적 증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사도들에게서 행해져 나온 것입니다.

5. 유럽 전도(16:6~19:20)

이 부분은 교회가 유럽에 확장되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요약은 19:20입니다. “이와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

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힘이 있어 전파된 말씀이 성령의 능력으로 효과를 촉진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홍왕하여 세력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성장은 두란노 서원을 중심해서 일어난 것임을 말합니다. 두란노 서원은 교제의 장소가 아닙니다. 이곳은 전도와 성경 교훈의 장소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성경 연구 모임을 주도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할 것을 증명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17:2,3). 바울 사도는 이처럼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성경 연구법은 강론이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서로 토론한다’ ‘토의한다’ ‘서로 알려고 캐묻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세 안식일에 저희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강론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의 일이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설교를 하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서로 토론하고, 내 생애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살피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그런 사도의 전도 방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6. 로마 전도(19:21~28:31)

이 부분은 복음이 로마에까지 확장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의 요절은 28:30,31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샛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금하는 사람이 없었더라.”

(28:30,31)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해야 할 요소가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샛집에 유하며’라 했으니 이것은 샛집 교회, 샛집 예배당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사도적 교회에서는 건물이 첫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에는 건물이 없습니다. 그들은 회당에서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을 안식일에 쓰고, 주일날에는 교회로 사용하였다는 말입니다. 근래에 교회가 발전하는 남미에 가정 교회(house church)가 많이 세워지고 있는데 한국에도 가정 교회, 혹은 세포 교회(cell church)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의 경우를 볼 때 꼭 예배당을 짓고 굉장히 시설을 해야만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미국의 큰 교회 가운데서 모범적인 교회인 달라스 시에 있는 제일침례교회(The First Baptist Church)에는 W.A. 퀴스웰이라는 목사가 있는데 벌써 20년 이상 한 교회를 맡아 왔습니다. 그 교회는 옛 예배당을 헐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그 곁에 20여 층에 달하는 최신식 교육관을 짓고 교육 훈련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건물만 자꾸 넓히는 것이 아니라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하면서 샛집 교회와 같은 기분으로 전도에 힘을 쓰고 선교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마다 외부 치장을 많이 하는 한국 교회로서는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교회가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전파되었고, 안디옥, 소아시아 그리고 헬라 세계뿐 아니라 로마까지 30년에 걸쳐 전파되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선교 제일주의’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 28:18-20이나 사도행전 1:8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행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

옵니다. 또 그들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 많이 나타나는 ‘말씀’ ‘이방인’ ‘교회’ ‘사도’ ‘믿는다’ ‘세례 준다’는 말들은 다 전도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편박이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지만 영적인 생활 가운데서 사도적 교회가 귀한 발전을 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성장의 특징이 오늘날의 교회에도 잘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성장의 원리와 전략

전 호 진

(아세아연합신학대학 부교수)

차 레

- | | |
|------------------------|---------------------------|
| <p>1. 현대 교회의 성장 운동</p> | <p>2. 한국 교회 현황과 성장 원인</p> |
| | <p>3. 교회 성장의 개념과 전략</p> |

오늘날 이렇게 교회 성장의 문제가 갑자기 나오게 된 것은 1965년 풀러신학교에서 소위 ‘교회 성장학파’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거의 파급된 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교회만을 제외하고 전 세계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풀러신학

* 본고는 본 연구소 주최 제2회 교회성장세미나에서 행한 강연을 옮긴 것입니다.